

# ‘한화 킬러’ 헥터, 연패 끊어다오



KIA 김기태 감독과 헥터가 승리 세레모니를 펼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지난주 1승1무3패 처참... 오늘부터 대전 원정**  
**최근 9승1패 한화에 3게임차 쫓겨... 순위 싸움 고비**  
**‘17이닝 2실점’ 헥터 출격... 분위기 반전 선봉에 선다**

답답한 한 주를 보낸 ‘호랑이 군단’이 에이스 헥터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KIA 타이거즈에게는 끝도 시작도 좋지 못했던 한 주였다. 5월31일 LG와의 경기에서 5시간 12분의 혈투 끝에 6-6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KIA는 지난 5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는 믿었던 김광수의 불운 세이브로 3-4 역전패를 당했다. 이 두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한 양현종은 또다시 시즌 2승에 실패했다. 1승1무3패로 끝난 지난 한 주. 안방에서 5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했고, 넥센전 6연패까지 이어졌다. 공수의 잇박자까지 계속

됐고, 벤치의 전략도 결과적으로 빛나지 않는다. 불안한 수비는 흐름을 바꾸는 결정타가 되고 있다. 헥터가 구겨진 ‘호랑이 군단’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른다. 윤석민이 어깨 부상으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 양현종까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올 시즌 헥터가 실질적인 에이스다. 올 시즌 11경기에 나온 헥터는 2.95의 평균자책점으로 6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헥터가 버틴 이닝도 73.1이닝. 양현종(78.1), SK 김광현(77.2), LG 소사(75)에 4번

■ 2016 KBO리그 팀순위 (6일 현재)

팀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38	1	15	0.717	0.0
2	NC	30	1	19	0.612	6.0
3	넥센	28	1	24	0.538	9.5
4	LG	24	1	25	0.490	12.0
5	SK	26	0	28	0.481	12.5
6	삼성	25	0	29	0.463	13.5
7	롯데	24	0	29	0.453	14.0
8	KIA	22	1	28	0.440	14.5
9	KT	22	2	30	0.423	15.5
10	한화	20	1	32	0.385	17.5

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경기당 평균 이닝으로 따지면 이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헥터가 전체 1위다. 임시 선발 체제로 어렵게 마운드를 꾸려가고 있는 KIA 입장에서는 헥터의 ‘이닝’이 큰 힘이다. 피홈런 부분에서도 헥터의 이름이 눈에 띈다. 73.1이닝 동안 내준 홈런은 2개에 불과하다. 이닝 당 피홈런율을 따져도 헥터

가 1위다. SK의 켈리도 11경기 피홈런을 2개로 묶었지만 이닝(71.2)에서 헥터가 앞선다. 안정감 있게 많은 이닝을 책임져주면서 헥터의 등판 날 승률도 좋다. 헥터가 등판한 11경기에서 팀은 8승3패의 전적을 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 시즌 KIA 에이스 타이틀은 헥터의 차지가 됐다. 에이스에 맞는 역할과 책임감이 필요한 한 주다. 헥터는 7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윤규진과 마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올 시즌 개인 성적만으로 보면 헥터의 우위가 점쳐지는 경기다. 윤규진은 선발로 나온 최근 3경기에서 12.2이닝 동안 11실점을 하면서 7.8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승 없이 1패만 남았다. 구원 투수로 나왔던 KIA전 4경기의 평균자책점도 11.57로 좋지 못하다. 반면 헥터는 한화를 상대로 두 경기에

나와 17이닝을 던지는 동안 단 두 명의 주자에게만 홈을 내주면서, 1.06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을 올렸다. 문제는 전체적인 팀 분위기다. 한화는 지난 주말 삼성 원정에서 싸늘이 승을 챙기는 등 최근 10경기에서 9승1패의 성적을 내며 가장 뜨거운 팀이 됐다. 어느새 8위 KIA와 10위 한화와의 승차도 3경기 차로 좁혀졌다. KIA에선 잘 풀리지 않는 경기에서 신인들의 경험 부족으로 경직된 플레이도 속제다. 실종된 해결사를 찾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 시즌 알짜배기 활약을 해줬던 브렛 필의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결정적 기회가 어렵게 사라지고 있다. 수비 실수는 흐름을 바꾸는 기폭제가 되고 있어 KIA의 고민이 쌓여가고 있다. 헥터가 한화의 뜨거운 기세를 꺾고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숫자로 본 ML 코리안리거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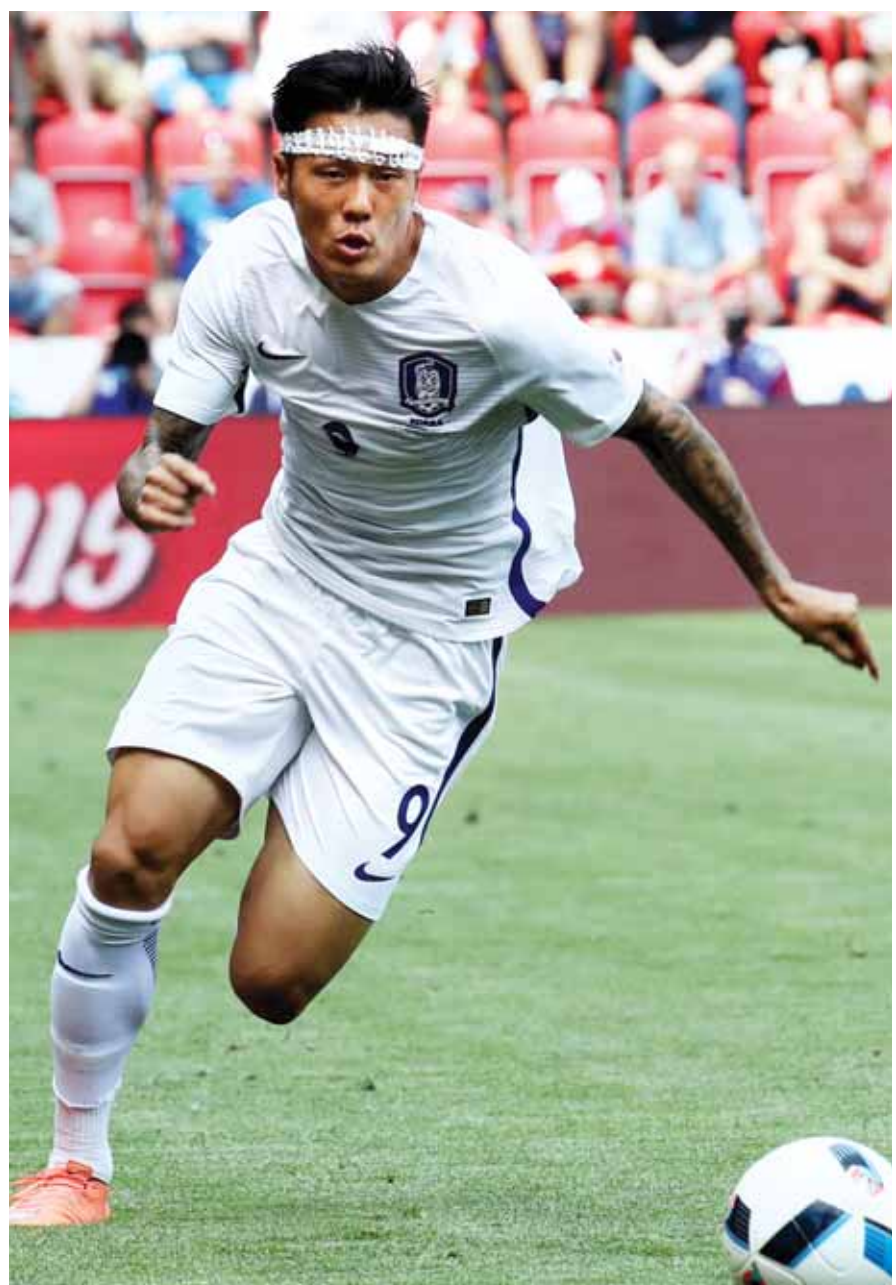
## 박병호 23일만에 홈런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질긴 아홉수를 넘어 마침내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박병호는 6일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1-1로 팽팽하던 3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좌월 솔로포를 터트렸다. 박병호는 볼 카운트 1볼-1스트라이크에서 상대 좌완 선발 드루 스마일리의 3구째 슬라이더(약 119km)를 잡아당겨 왼쪽 2층 관중석 난간을 맞고 떨어지는 큼지막한 홈런으로 연결했다. 지난달 14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서 8, 9호 홈런을 연달아 쳐낸 후 아홉수에 허덕이던 박병호는 23일, 19경기 만에 화려하게 비상했다. 또 박병호는 한국인 메이저리거로는 최희섭, 추신수, 강정호에 이어 4번째로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박병호는 나머지 타석에서는 안타를 쳐내지 못하며 5타수 1안타 1타점으로 이날 경기를 마쳤다. 시즌 타율은 0.217(166타수 36안타)을 유지했다. 미네소타는 9회초 마무리 케빈 켈슨이 무너지면서 5-7로 패했다. /연합뉴스

# 3

## 3일째 등판 오승환 퍼펙트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입성 후 처음으로 3일 연속 마운드에 오르는 부담에도 완벽히 투구를 펼쳤다. 오승환은 6일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 5-3으로 앞선 8회초 등판해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마이크 매시너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팀이 6회 4점을 얻어 5-3으로 역전하자 오승환에게 ‘등판 준비’를 지시했고, 8회 출격 명령을 내렸다. 4일과 5일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제압한 오승환은 미국 무대에서 처음으로 사흘 연속 마운드에 올랐다. 구위는 여전히 대단했다. 오승환은 첫 상대 타자 브랜던 크로퍼드를 151km 직구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후속타자 그레고르 블랑코는 140km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오승환은 코너 길라스피를 공 한 개로 중견수 뜬공 처리하며 가볍게 1이닝을 막았고, 시즌 9번째 홀드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메이저리그 입성 후 첫 홈런을 내주며 3실점(1이닝)했던 오승환은 이후 6경기에서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평균자책점은 1.82에서 1.76으로 낮췄다. 세인트루이스는 6-3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 스페인에 뺨맞은 한국, 체코에 화풀이

## 슈틸리케호, 윤빛가람·석현준 골 2-1 승... 유럽 원정 1승1패

‘무적함대’ 스페인(FIFA 랭킹 6위)에 참패한 슈틸리케호가 ‘동유럽 강호’ 체코(FIFA 랭킹 30위)를 상대로 공격 축구를 앞세워 승리를 따내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렸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지난 5일(한국시간) 체코 프라하의 에덴 아레나에서 열린 체코와 평가전에서 윤빛가람(안방)과 석현준(포르투)의 득점포가 이어지며 2-1 승리했다. 2001년 8월 체코를 상대로 0-5 완패를 맛봤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스페인에 1-6으로 대패했던 아쉬움에서도 벗어났다. 유럽 원정 2연전을 20명으로 나선 슈틸리케 감독은 스페인전과 체코전에서 골키퍼를 빼면 큰 전력 변화를 주지 않았다. 스페인전에 후반 투입된 석현준이 체코전 선발로 출전했고,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기성용(스완지시티) 대신 윤빛가람이 선발 카드로 선택된 가운데 스페인전 대량 실점의 책임을 떠안은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다신 ‘베테랑’ 정성룡(가와사키 프론탈레)이 나선 게 변화였다. 변화는 성공을 불러왔다. 선발출전한 석현준과 윤빛가람은 사령탑의 의도에 맞게 전반전에 득점에 성공했고, 정성룡은 슈퍼세이브 행진을 펼칠 실점을 막았다. 이날 승리는 단순히 멤버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1일 스페인전에서는 유럽에 도착해 이틀도 채 훈련하지 못한 터라 선수들의 시차 적응도 문제였다. 시즌을 끝낸 유럽파들의 컨디션도 난조였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기와 조직력이 뛰어난 스페인 선수들을 상대한 태극전사들은 압박은 물론 볼 점유도 제대로 못 하며 6골이나 허용하는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스페인전 이후 나흘 만에 체코와 만난 태극전사들의 컨디션은 현지 적응을 마친 터라 컨디션이 한층 올라와 있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스페인전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손흥민(토트넘)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에게 또다시 선발 출전 기회를 줬다. 손흥민과 지동원은 전반 초반 원톱 스트라이커 석현준과 유기적인 패스를 이어받으며 슈팅 기회를 만들어 냈다. 특히 스페인전과 똑같은 4-2-3-1 전술을 가동했음에도 전반 초반부터 공격진들이 보여준 자신감 넘치는 공격축구는 달라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둔

## 체코전 추가골 장면



체코는 완성된 팀이었고, 슈틸리케호는 오는 9월 시작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력 차가 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전반전은 슈틸리케호의 압승이었다. ‘패스 마스터’ 기성용이 빠진 상황에서 대체 투입된 윤빛가람은 석현준의 결승골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프리킥으로 선제골까지 뽑아내며 슈틸리케 감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스페인전 참패로 무너진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선수들의 강한 자신감이 ‘공격 축구’로 이어지며 슈틸리케호 출범 이후 유럽 원정 첫 승리라는 결과가 나왔다. /김여울기자 wool@

◀5일 오후(한국시간) 체코 프라하 에덴 아레나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유럽 원정 2차전 체코와의 친선경기. 상대 수비의 거친 파울로 눈 위를 다쳐 봉대를 감은 석현준이 상대 수비수를 피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퓨처스리그-상무 야간경기

### 오늘 챔피언스필드

KIA 타이거즈의 퓨처스리그 선수단이 야간경기과 교류경기로 경험을 쌓는다. KIA 타이거즈가 7일 상무 야구단과 챔피언스필드에서 퓨처스리그 경기를 치른다. 선수단의 야간 경기 적응력을 위해 오후 6시 경기로 진행한다. 남부리그 1·2위 팀의 대결이다. ‘올스타 군단’인 상무가 25승4무14패(승률 0.641)로 남부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KIA는 24승1무20패(0.545)로 2위에 올라 있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두 팀은 2승2패로 팽팽히 맞서 있다. 상무에서 군복무중인 내야수 김선민, 투수 임기영과 문경찬은 시즌 두 번째 친정 나들이에 나선다. 야간 경기로 한 주를 여는 KIA 퓨처스 선수단은 주말에는 일본 야구를 경험한다. 10일부터 함평 밸리저스 필드에서 소프트뱅크 3군과의 교류전이 열린다. 교류전은 주말 3연전으로 치러지면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